

담양 '담주 예술구' 임대 공간 입주자 모집

대표 관광지-원도심 가교역할 복합문화거점공간 총 1875.81㎡ 23실 오는 30일까지 만25세 이상

담양군은 담양의 복합문화거점인 담주 예술구 예주공간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임대공간에 입주할 의향자를 모집한다.
담주 예술구는 문화예술 활동가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상인들이 유지해 담양의 대표 관광지와 원도심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복합문화거점

공간으로, 과거 담양에 있었던 독특한 건축물을 모티브로 신·개축했다.
이번 예비 입주의향자 모집은 임대공간으로 계획된 총 1,875.81㎡, 23실에 대한 입주 예정 희망자들을 사전 조사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유지하고 예술구의 체계적인 운영을 설계하기 위해 진행된다.

모집은 오는 30일 17시까지 담주 예술구 사업단에서 이메일과 현장 접수로 진행될 예정이며, 입주의향자 신청 자격은 만 25세 이상의 국내외 예술 및 문화 활동가와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공간과 거점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모두에게 해당된다.
또한 담주 예술구 조성사업단은 입주 희망자의 현장 방문 희망 시 예약을 통해 공간에 대한 이해와 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입주의향서 제출자는 추후 입주 대상자 선정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

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홈페이지(<http://www.damyan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담주 예술구 예주공간 입주의향자 모집과 진행될 입주자 모집을 통해 원도심 문화 경제의 활성화를 이끄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입주하면 인근 상권 활성화에 미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명품농업대학 "사업계획 수립도 자신 있게"

전문 강사 초빙하여 사업계획 수립·계획서 작성요령 교육

곡성군은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대청마당에서 제10기 곡성명품농업대학 교육생 58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수립 및 계획서 작성 요령 교육을 실시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은 임승호 농어촌개발컨설턴트를 초빙하여 교육생들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원칙 및 부분별 작성요령, 발표기술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올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농업정책자금 지원정책과 같은 유의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곡성명품농업대학 농식품가공반 교육생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마다 너무 막연하고 어려웠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곡성명품농업대학 사업계획평가회는 11월 18일에 실시되며, 출석 및 현장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우수교육생을 선정해 내년 농업CEO육성기반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곡성=양해영기자

곡성군, 청년농업인

전문가 현장상담 추진

14명 대상 농업현장 체크 등

곡성군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21일과 22일 현장 모니터링을 가졌다.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농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이다.

곡성군은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11명을 선발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농업전문가 3명이 청년농업인 14명을 대상으로 농업현장을 체크하고, 경영장부 사용 등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영농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

곡성군은 현장상담 외에도 청년농에게 실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곁면에 조성한 경영실습농장이 대표적이다. 경영실습 농장은 청년농을 위해 최적화된 현대식 스마트 온실로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이 가능해 영농실패 최소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얼마전 조성을 마치고 읍면 산업계를 통해 11월부터 입차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튼튼한 맞춤형 농업기반을 갖추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화순군, 청년과 함께한 문화·역사 탐방

지친 청년들 삶에 인문학적 체험 통한 휴식·여유 제공



화순군은 22일 청춘 문화살롱 수강생을 비롯한 화순 청년 20여 명이 화순예술인촌과 조광조 유배지 등을 탐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청년들이 화순의 예술, 역사

살아있는 공간에서 잠시나마 지친 삶을 잊고 인문학적 체험을 통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탐방 시간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전시를 기획한 학예연

구사, 작품을 만든 작가가 기획 의도, 작품 의미 등을 직접 설명해 청년들의 역사·예술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왔다.

문화탐방에 참가한 한 수강생은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다, 이렇게 다른 청년과 교류도 하고 시원한 가을 날씨에 아름다운 작품도 감상하니 다소 여유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예술과 문화 공간을 돌아보며 삶에 지친 청년들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줬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춘 문화살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구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화순읍 총의로 100) 2층에서 오는 12월까지 '화순군 청춘 문화살롱'을 다양한 강의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 혁신도시 '첼로 공중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특별상

호수공원 4호 화장실 편의·안전시설 구비

나주 혁신도시 호수공원에 위치한 '첼로 공중화장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첼로 공중화장실'은 호수(문화)공원 내 4호 화장실로 빛가람동 파출소 앞쪽에

위치해있다.
공원 폭쪽에 걸 맞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눈에 띄는 세련된 디자인,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갖춰 화장실 본연의 기능과 함께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한 안심벨 설치와 함께 관할 경찰서와 주기적인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 안전성도 확보했다
배후에는 혁신도시 랜드마크인



음악분수와 빛가람 전망대가 한 눈에 들어와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나주시, 남평·다도 마을하수도 정비 구슬땀

광이·평산마을 총 6.49km구간 ... 58억원 투입 2023년 준공

나주시가 농어촌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 하수도 정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나주시는 남평읍 광이마을, 다도면 평산마을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질 보호를 위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58억원(국비 70%)을 투입해 광이마을, 평산마을에 각각 하수관로 3.64km, 2.85km(총 6.49km)를 오는 2023년까지 설치한다.
특히 오수와 우수가 한 개의 관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기존의 합류식에서 별도의 오수관로를 신설,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도를 도입했다.

시는 앞서 2018년 기본시설계획에 착수하고 2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설계현장검토, 현장가설 사무실 축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8월 25일 공사에 본격 착공했다.

하수도 정비공사가 마무리되면 2개 마을 전체 118가구의 개인정화조 폐쇄에 따른 주거여건 개선은 물론 정화조 분뇨수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남평, 다도 지역 하수도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편의 개선은 물론 방류수역인 영산강 유역 수질보전과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고도처리를 통한 양질의 수자원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